

유럽, 화학제품 수입국 전략 위기

유로화 강제 장기화로 수출타격 커 ... 내수가격 압박으로 마진악화

유럽의 화학기업들이 미국 달러화 약세로 가격하락 압력을 받음에 따라 마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강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2년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 약 20% 상승했으며 유럽의 주요 통화인 스위스 프랑화 및 영국 파운드화도 유로화에 비해서는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나타냈다.

Degussa에 따르면, 최근 유럽 화학기업들은 지속적인 유로화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2003년 11월 말 1.18달러에서 12월 초 1.30달러로 상승했다.

더욱이 몇몇 투자은행들은 유로화 가치가 1.4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출지향적인 유럽의 화학산업은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달러권 지역의 수출규모를 축소하거나 Degussa와 같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기업은 미국 생산량을 확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유럽 화학기업들은 미국에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화 가치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몇 화학분야의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석유화학 생산기업들은 수출타격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은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비타민 및 타이완산 플라스틱 전구체(Precursor) 수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을 제외하면 범용 화학제품 수입강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특수화학 분야 가운데 하나인 비타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BASF는 마진악화 및 원료 코스트 강세와 더불어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해 2003년 4/4분기 유럽 화학기업이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Degussa는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센트 상승하면 유럽 화학기업들은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 Taxes)에서 약 500만유로(600만달러)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마진을 확보하는 선에서 코스트 감축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유로화가 초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특히 범용화학기업들은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가격인상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 Polyolefin 생산기업 가운데 하나인 Borealis 역시 더 이상 코스트 절감만으로는 수익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1990년대 달러화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화학산업은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략했다. 따라서 유로화 강세가 장기화되면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기업들도 유럽 이외 지역으로의 생산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수요기업들도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Journal 2004/01/05>